

# 국립중앙도서관

I S S U E P A P E R

# 이슈페이퍼

## 국립도서관 개관 및 해방 후 1년간의 활동

Vol. 16

2023. 9.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도서관 개관 및 해방 후 1년간의 활동

조혜린 서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장)

Vol. 16  
2023. 9.

## 국립중앙도서관

I S S U E P A P E R

## 이슈페이퍼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제16호

발행일 2023년 9월 27일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0578

팩스 02-590-0546

누리집 <https://nl.go.kr>

ISSN 2765-3005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으며, 사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변경·배포할 수 없습니다.

I. 들어가며	02
II. 주요 연구대상자료 개요	02
1. 『관보(館報)』 및 『문원(文苑)』	02
2. 『현장일지(現場日誌)』	03
III. 국립도서관 개관 및 운영	04
1. 국립도서관 개관 당시 일반 현황	04
2. 해방 후 1년간 국립도서관 운영	06
IV. 전국 도서관 협력 및 지원 활동	12
1. 조선도서관학교 설립	12
2. 조선도서관협회 설립	14
V. 나오며	16
참고문헌	17

### | 주요 키워드 |

국립도서관, 도서관 해방일사, 법률도서 이관, 조선도서관학교, 조선도서관협회, 도서관학교, 도서관협회, 이재욱 관장

# 국립도서관 개관 및 해방 후 1년간의 활동<sup>1</sup>

조혜린 서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장)

## 요약

이 연구에서는 국립도서관에서 발간한 기관지와 일지, 해방 당시의 신문과 관보 등 1차 자료들을 활용하여 국립도서관의 개관 및 해방 후 1년간의 주요 활동을 고찰하였다. 국립도서관은 해방 후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시설과 장서를 그대로 승계하여 1945년 10월 15일에 개관하였으며, 개관 당일 신규 직원 채용, 1946년 초까지 소산되어 있는 도서의 운반 등 장서관리와 운영 인력 충원에 힘썼다. 주요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이용자가 급증(1일 평균 1945년 200명에서 1946년 640명)함에 따라 분관 설치를 계획하였다. 둘째, 1945년 12월에 촉발되어 1946년 4월 2일에 가시화된 '법률도서를 법제도서관으로 이관하라'라는 군정청 명령에 대응하여 특히 언론(10일간 신문기사 26건)에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난국을 해결하였다. 전국 도서관 지원 및 협력 활동으로는 첫째, 1945년 12월 23일부터 조선도서관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별도 인가 절차 없이 1946년 4월 1일 개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사서양성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둘째, 1945년 8월 18일부터 조선도서관협회 설립을 추진해 8월 30일에 조직을 결성하고, 10월 18일 일제강점기에 존재했던 조선도서관연맹을 해체함으로써 한국인이 최초로 전국 도서관 전문단체를 설립한다는 쾌거를 이루었다.

**주요 키워드** 국립도서관, 도서관 해방일사, 법률도서 이관, 조선도서관학교, 조선도서관협회, 도서관학교, 도서관협회, 이재욱 관장

1 이 연구는 2022년 '국립중앙도서관사연구회' 연구모임의 결과물로, 그 결과보고서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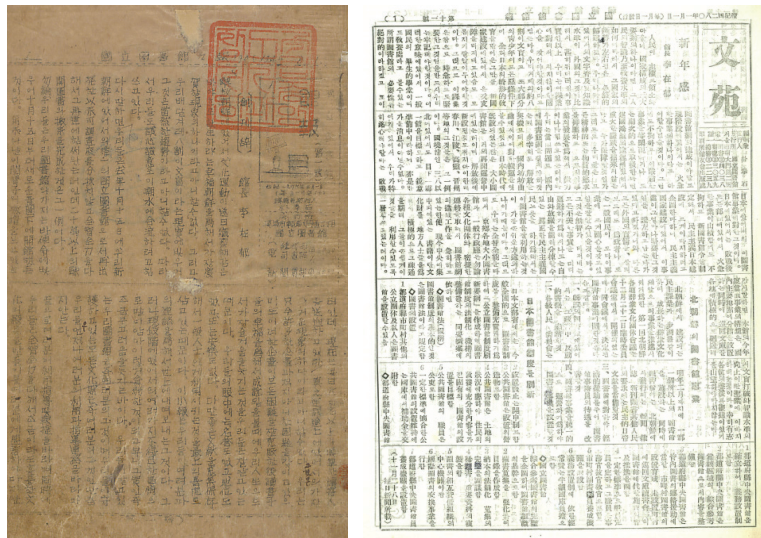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 10월 15일에 개관하여 2023년 개관 78주년을 맞이하였다. 해방 직후의 국립도서관에 대해서는 1973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한 『국립중앙도서관사(國立中央圖書館史)』에 개략적인 현황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을 발간할 당시에 참고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1차 자료들을 찾을 수 없어 해당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런데 최근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에서 해방 전 조선총독부도서관 및 해방 후 국립도서관 초창기에 작성된 각종 일지가 발견되고, 국립도서관 기관지의 일부 결호를 기증받는 등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역사뿐만 아니라 당대의 도서관 상황 전반을 연구하는 데 참고가 되는 기초자료로 그 의의가 매우 크며, 당시 역사를 고증하는 데 1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립도서관 기관지 『문원(文苑)』에 수록된 ‘도서관 해방일사(圖書館解放日史)’는 1945년 8월부터 1946년 8월까지 해방 후 1년간의 일지를 날짜별로 기록하여 해방 직후 국립도서관의 역사를 개관하는 중요한 기록으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해방일사’에 나타난 일들을 중심으로 각종 1차 자료를 활용하여 국립도서관의 개관 및 해방 후 1년간의 주요 활동을 살펴본다.

## II. 주요 연구대상자료 개요

### 1. 『관보(館報)』 및 『문원(文苑)』

『관보』는 1946년 3월부터 12월 제10호에 이르기까지 월간으로 발행된 국립도서관 최초의 기관지이다. 46배판 크기의 국한혼용문으로, 수기(手記)로 등사·발행하였다. 제1호부터 8호까지는 각 4면, 제9호와 제10호는 각 2면으로 되어 있으며 1단이 22행, 상하 2단 형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세로쓰기 방식을 사용하였다. 기본체제는 간략한 권두언 또는 사회 저명인사의 글로 시작하여 조선관계 중요 도서목록 등 각종 목록 소개, 관내일지, 본관 열람통계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의 왼쪽 자료 참조).



[그림 1] 『관보』 창간호(좌)와 『문원』 제11호(우)

『문원』은 1947년 1월 1일부터 1956년 2월 1일 통권 제54호에 이르기까지 월간으로 발행되었다. 『관보』에서 『문원』으로 제호를 변경하였으나 통권 제11호로 시작하여 『관보』로부터 연속성을 부여받았다. 46배판 크기의 국한혼용문으로 이때부터 활판으로 인쇄되었다. 제49호(1950년 3월) 이후 중단되었다가 1953년 11월 속간되었으나 통권 제54호(1956년 2월)를 마지막으로 종간되었다.

한국전쟁 이전에 발행된 제49호까지는 대부분 4면으로 구성되었으며, 1면을 6단으로 나누고 1단은 39행으로 하여 세로쓰기 방식을 사용하였다. 인쇄상태가 양호하여 판독에 무리가 없으나 제47호는 결호로 나타난다.<sup>2</sup> 수록된 내용에는 국립도서관의 역사를 개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록들이 담겨 있다(그림 1의 오른쪽 자료 참조). 국립도서관 기관지 『관보』 및 『문원』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해제는 『2023년 춘계 공동 학술대회』 자료집(조혜린, 2023)을 참고할 수 있다.

## 2. 『현장일지(現場日誌)』

2020년 말 국립중앙도서관 보존관 서고에서 조선총독부도서관 및 해방 후 국립도서관 초창기에 수기(手記)로 작성한 일지 등 40여 책이 발견되었다. 80~90년 전에 만들어진 기록물치고는 지질과 제본,

2 『문원』의 창간호라 할 수 있는 제11호도 결호였으나 2022년 국립중앙도서관사연구회에서 한국아리랑연합회 김연갑 회장에게서 기증받은 뒤 장서개발과에 다시 기증하여 결호가 보완되었다.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판독에 전혀 무리가 없다.



[그림 2] 『現場日誌』 표지(좌)와 책등 사진(우)

이 중 1945년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그림 2]의 『현장일지』가 유일하다. 이 일지는 상반기와 하반기 총 2책으로 되어 있고 표지는 하드커버로 제본되어 있다. 크기는 가로 22cm, 세로 32cm로 2책 모두 동일하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1945년 8월 15일까지 기록은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일본어로 작성했고, 해방 이후 기록은 국립도서관에서 국한혼용문으로 작성했다. 특히 1945년 하반기 일지는 국립도서관 개관 당시 상황과 운영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1차 사료로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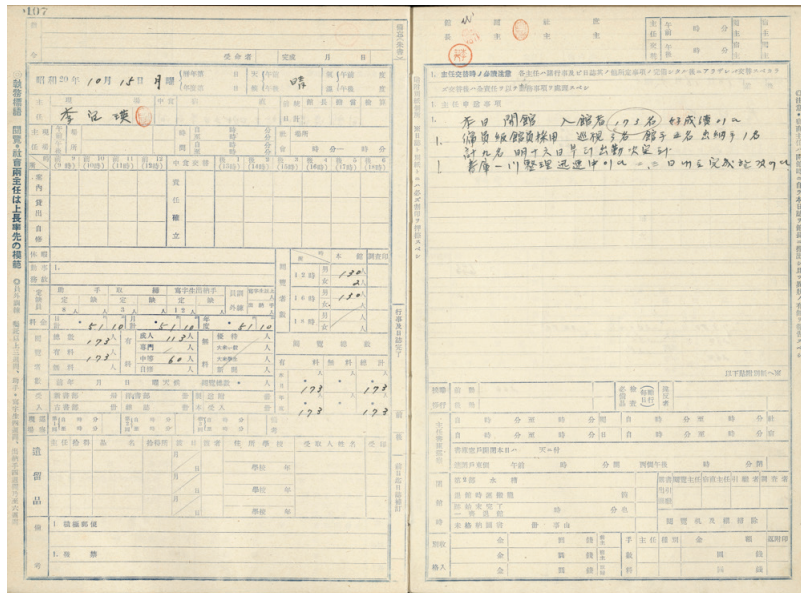
### III. 국립도서관 개관 및 운영

#### 1. 국립도서관 개관 당시 일반 현황

1945년 10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 국립도서관이 개관하였다. 개관 당시 시설은 1924년에 준공된 소공동 조선총독부도서관 건물과 1942년에 건축된 아현동 서고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장서 또한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장서 33만여 책<sup>3</sup>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국립도서관이 혼란한 해방정국에 빠르게

3 『문헌보국』을 보면, 1944년 10월 기준 장서는 정본(正本) 282,926책, 별본(別本=아동서와 복본) 포함 330,599책으로 기록돼 있다. 이로 볼 때, 『국립중앙도서관사』의 1945년 장서 통계 284,467책(201쪽)은 정본 통계로 보인다. 여기에 단순 계산으로 1944년 10월 당시의 별본 책수를 더하면 332,140책이다. 만일 월 1,000책씩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해방 당시 장서는 34만여 책으로 볼 수도 있다(朝鮮總督府圖書館, 1944, 15. 참조).

개관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강점기의 시설과 장서를 이어받았고, 특히 이재욱 관장과 박봉석 부관장 같은 도서관 핵심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1945년 예산은 383,926圓, 직원은 박봉석, 이의영, 강춘수 등 16명<sup>4</sup>으로 출발하였다. 자료실은 일반열람실, 신문열람실, 대중문고, 부녀자문고 등 4개 실에 좌석 수는 총 254석이었다.



[그림 3] 『현장일지』 1945년 10월 15일자 기록

국립도서관 개관 당일의 기록을 보자. [그림 3]의 『현장일지』 1945년 10월 15일자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작성자는 10월 9일에 열람부 대출과장으로 임명된 이의영(李宜瑛)이다.

10월 15일(月)

1.本日(本日) 개관(開館). 입관자(入館者) 173명(名) 호성적(好成績)이다.

1.용원급(傭員及) 관원(館員) 채용(採用). 순시(巡視) 3名, 관수(館手) 5名, 출납수(出納手) 1名, 계(計) 9名. 명(明)

16일(日)부터 출근(出勤) 결정(決定)하다.

1.서고(書庫) 1문(門) 정리(整理) 추진 중(推進中)이다. 2,3일 내(內)로 완성(完成)할 것이다.

4 확인된 16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춘수, 권오복, 김동환, 김수동, 김순영, 박봉석, 박원하, 송포백, 유성복, 이억술, 이의영, 이일목, 이희택, 조흥복, 허만, 황석주(이상 가나다순).

일지 좌측에는 열람통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월요일인 이날의 날씨는 맑았으며 총열람자 수는 173명이었다. 이 중 성인은 113명, 중등학생이 60명이었다. 또한 12시, 오후 4시, 오후 6시마다 열람자 수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12시경 열람자 수는 132명이고, 이 중 여성은 2명뿐이었다. 오후 4시경 열람자 수는 130명으로 모두 남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남성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그 후 통계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이날 징수된 요금은 총 51圓 10錢이었다.

개관 준비에 착수한 지 불과 10일 후 국립도서관을 성공리에 개관하기는 했으나, 한편으로는 개관 당일 직원(일용직)을 9명이나 채용하고 채용 다음 날부터 출근하도록 한 것을 보면, 일단 개관은 했지만 그 이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심각하게 부족했는지를 알 수 있다.

## 2. 해방 후 1년간 국립도서관 운영

개관은 했으나 모든 일이 완전히 정비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귀중본 등의 자료들을 아현정(현재의 아현동)뿐만 아니라 개성 등 원격지에도 분산해 둔 상황이었으므로 이 자료들을 도서관으로 가져와야 했다. 개성에 있는 도서 152상자의 운반작업이 완료된 때는 운반을 시작한 지 약 2달 만인 1946년 1월 초였다.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충원도 중요한 일이었다. 1945년 10월 15일 개관 당일 관장 직권으로 용원(傭員) 9명을 채용한 이후 1946년 2월에는 여자 관원 16명을 전격 채용하였다. 여기서는 장서와 직원을 기반으로 한 국립도서관 운영, 특히 열람서비스 운영현황과 이 시기의 일대 사건이었던 법률도서 이관 문제를 고찰한다.

### 가. 열람서비스 제공 및 운영

『현장일지』의 기록을 보면 개관 이후 열람자 수는 첫 한 주 내내 “연일 만원(連日滿員)”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상당히 많았다. 개관 이튿날인 10월 16일자 기록에는 “금일(今日) 입관자(入館者) 264명(名). 연일(連日) 증가(增加)하니 신속(迅速)으로 도서정리(圖書整理) 및(及) 열람실(閱覽室) 책상(机上)을 증가(增加)해야 할 것이다”라고 할 정도였다. 당시 열람석이 254석이었으므로 좌석 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sup>5</sup> 1945년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장일지』에 나타난 열람통계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5 ‘도서관 해방일사’ 11월 10일 기록(文苑 15, 2면)을 보면, 결국 아현정 서고에서 책상과 의자 등을 반입하여 열람 좌석을 확충하였다.



〈표 1〉 국립도서관 개관 이후 1945년 열람통계<sup>6</sup>

월별	개관 일수	열람자 수(명)		열람 요금(圓)	
		합계	1일 평균	합계	1일 평균
10월	15일	3,195	213	730.10	48.70
11월	26일	4,691	181	1,105.80	42.50
12월	25일	5,297	212	1,445.60	57.80
계	66일	13,181	200	3,472.30	52.60

일요일 등 휴관일을 제외한 개관 일수는 총 66일이고 열람자 수는 1일 평균 200명으로 나타났다. 10월과 12월은 1일 평균 212~213명으로 비슷하나 11월은 181명으로 훨씬 적었다. 1일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날은 12월 26일(수)로 319명에 달하였으며, 가장 적은 날은 10월 20일(토)로 127명이었다. 이날은 가두시위가 있었다고 하므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열람자 수가 좌석 수 254석을 넘는 날은 총 7일이었는데 대부분 12월 하순에 집중되어 있다. 열람자는 모두 유료로 이용하여 도서관이 거둔 수익금은 총 3,472圓 30錢으로 1일 평균 약 52圓 60錢이었다.

한편, 1946년 2월 3일부터는 연중무휴관 방침을 채택하는데, 『관보』에 나타난 1946년의 열람통계를 보면 이용자 수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급증한다. <표 2>는 1946년 8월의 열람통계이다.

〈표 2〉 1946년 8월분 본관 열람통계(출처: 館報 8, 4면)

요금별[명]			도서 부문별				직업별		
	남	11,572	부문별	책수	백분율[%]	순위	직업명	인원수[명]	순위
유료	여	565	제1문 철학·종교	1,242	6.9	7	종교·교육	420	4
	계	12,137	제2문 교육·사회	1,505	8.3	4	기자·예술	204	7
	남	7,391	제3문 법률·정치	633	3.4	10	관공리·군인	407	5
무료	여	331	제4문 경제·통계	551	3.1	11	학생	7,376	2
	계	7,722	제5문 어학·문학	4,535	25.3	1	상업	179	9
합계	남	18,763	제6문 역사·지리	755	4.2	9	농공업	189	8
	여	896	제7문 이학·의학	2,959	16.5	2	은행·회사원	338	6
	계	19,859	제8문 공학·군사	805	4.9	8	직공·도제	21	10

6 『현장일지』중 1945년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말 월간 누계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요금별[명]		도서 부문별				직업별		
열람요금	690,550[圓]	제9문 산업·예술	1,413	7.9	5	기타	852	3
		제10문 전서·잡찬	1,435	7.9	4	무직	9,860	1
		조선문	1,728	9.6	3	미군인	13	11
		합계	17,961	100%		합계	19,859	

<표 2>를 보면, 1946년 8월 한 달간 이용자 수는 19,859명으로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640명에 달한다. 1945년과 달리 유료 이용자는 약 62%였고, 남자 이용자가 약 9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도서 부문별 이용통계는 어학·문학, 이학·의학, 조선문 세 분야가 50% 이상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어학·문학이 25.3%, 이학·의학 부문이 16.5%, 조선문이 9.6%였다. 직업별 이용자는 무직이 약 50%, 학생이 37%로 무직자와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은 통계표가 기록되어 있는 1946년 6~8월 모두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다. 무료 이용자 수가 1일 평균 250여 명에 달하고 무직자가 도서관을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한 것은 당시 시대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국립도서관은 이러한 열람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모든 복본을 아현정 서고로 운반(1946년 8월 9일 완료)하는 한편, 문화시설과장과 열람 좌석 부족에 대한 강구책을 상의(7월 18일)하고, 열람 분실 후보 건물로 적산관리처와 일본 사원 등을 조사(7월 19일, 24일)한 뒤 분관 설치에 관한 문서를 문교부에 제출(7월 25일)하는 등 분관을 설치해 열람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sup>7</sup>

### 나. 법률도서관 이관 저지 활동<sup>8</sup>

‘도서관 해방일사’에 법률도서관 이관 문제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45년 12월 1일이다. 이날 군정청 교화과장 미첼(Mr. Mitchell)이 도서관을 방문한 것은 국립도서관의 법률도서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12월 10일에는 미국인 총무과장이 방문하여 법률도서관의 법무국 이관에 대해 처음으로 의사를 표명했고, 12월 23일에는 학무국장 로카드(E.N. Lockard)<sup>9</sup>와 예술종교과 한국인 과장 최승만, 미국인

7 ‘도서관 해방일사’(文苑 20, 3면 및 文苑 21, 2면)에 좌석 부족으로 인한 분관 설치에 동분서주하는 국립도서관의 대응이 기록되어 있다. 분관 설치는 결국 실현하지는 못했다.

8 이 활동에 관해서는 이재욱 관장의 업적 중 납본제도의 기반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언급한 논문(조혜린, 2020, 293-294)과 이재욱의 업적 중 국내 신문 게재현황을 분석하면서 국립도서관의 ‘법제 도서’ 이관 관련 신문기사와 함께 언급한 논문(송승섭, 2021, 634-635)이 있다.

9 ‘도서관 해방일사’에는 ‘Lockard’가 ‘Lockad’로 오기되어 있다(문원 15, 3). 1945~1946년의 『자유신문』 기사에는 록카-드, 라카-트, 락-카드, 락하드, 락하-드 등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미군정청 관보에 게재된 한글 표기 ‘로카-드’(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77, 1946, 3면)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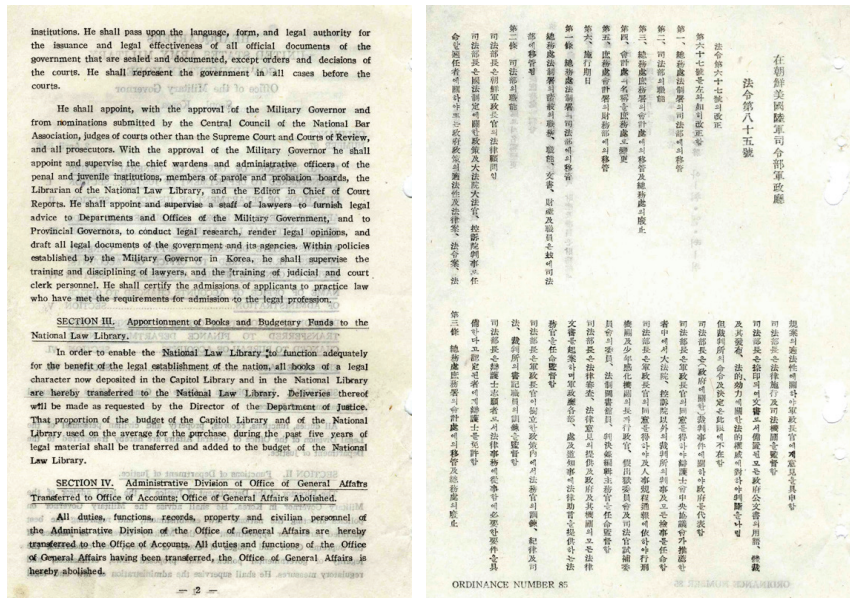
과장 네제비치(E.I. Knezevich)가 방문하여 두 번째 이관 요청이 있었다. 이후 군정청은 1946년 4월 2일 법령 제67호(Ordinance Number 67)를 공포해 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Section III. Apportionment of Books and Budgetary Funds to the National Law Library(書籍及豫算額配分の 法制圖書館에의 移管)’를 명령하였다([그림 4]의 왼쪽 자료 참조).<sup>10</sup> 해당 법령조문 제3조(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67, 1946, 2면)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서적 및 예산액 배분의 법제도서관에의 이관

법제도서관이 국법 제정의 편의를 도모케 하기 위하여 현재 본청 도서관 및 국립도서관에 보장(保藏)한 법률 부문 서적은 법제도서관에게 이(茲)에 이전함.

서적의 교부는 사법부장의 요구에 따라 행함.

과거 5년간 법률 부문 서적 구입에 사용된 평균액에 해당되는 본청 도서관, 국립도서관의 예산액을 이관하여 법제도서관의 예산에 가산함.



[그림 4] 미군정청 법령 제67호(좌)와 법령 제85호(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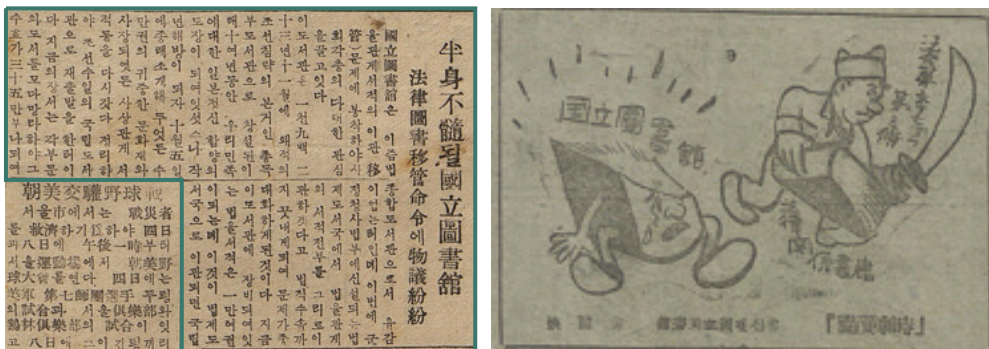
10 '도서관 해방일사'의 5월 1일 기록으로 보아 국립도서관의 대처가 다소 안일했거나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6년 4월 2일 법령이 반포되었는데도 4월 2일 기록에는 해당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의 기록으로 보아 5월 1일에야 법령반포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1946년 4월 30일 법무국 직원들의 법률도서 반출작업 행동이 개시되었는데, 국립도서관은 그 이전까지 상황을 다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군정청의 요청이 있을 때 국립도서관의 사명과 역할을 설명하고 절대 이관할 수 없음을 밝혔으므로 군정청에서도 그 뜻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46년 4월에 이르러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그 대응책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도서관 내부의 활동이다. 먼저 5월 1일 사법부와 문교부를 방문하여 협의와 진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군정장관 러치(A.L. Lerch) 소장에게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5월 2일에는 총 9명으로 대책장구부서를 구성하여 총무부, 외교부, 선전부로 나누고 부마다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둘째, 문화단체 등 국립도서관 외부의 활동이다. 곳곳에서 정부에 진정서 또는 건의서를 제출하여 이관 문제를 저지하려고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먼저 5월 3일에는 53개 문화단체가 ‘도서옹호협력회’를 조직하여 6일 군정장관, 문교부장, 사법부장에게 건의안을 제출하였다. 5월 4일에는 도서관협회가, 7일에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러치 군정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셋째, 신문 등 언론보도로 여론을 환기하는 활동이다. 그 결과, 5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신문에 보도된 기사만 총 26건이었다. 이는 당시에 대외홍보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국립도서관 선전부 활동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5] 법률도서 이관 문제가 게재된 자유신문(좌)과 중앙신문(우)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sup>11</sup>에서 1945년 8월 15일부터 1946년 8월 31일까지 ‘국립도서관’ 등으로 키워드 검색을 하면 관련 기사는 총 72건 나타난다. 이 중 법률도서 이관 문제를 다룬 신문기사는 36%(26건)에 달하며, [그림 5]의 “반신불수될 국립도서관”(自由新聞, 1946. 5. 3. 2면), “병신된

11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출처: <https://nl.go.kr/newspaper/>

국립도서관(中央新聞, 1946. 5. 7. 1면) 등과 같이 자극적인 제목이 시선을 끈다. 이는 그만큼 이 문제가 당시 얼마나 뜨거운 이슈였는지, 국립도서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언론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 보여준다.

<표 3>은 해당 기사가 게재된 신문기사 일람표로, 게재일순 내에서 신문명을 가나다순으로 정렬한 것이다. 중앙신문이 6건을 게재하여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고, 자유신문이 5건, 한성일보와 공업신문이 각 4건, 현대일보가 3건, 중외신보가 2건, 영남일보와 대구시보가 각 1건을 게재하였다. 이 기사들을 보면 법률도서관 이관 문제가 당시 얼마나 장안의 화제였는지, 또 국립도서관이 얼마나 총력을 기울여 이 문제에 대응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표 3> 법률도서관 이관 문제가 게재된 신문기사<sup>12</sup>

신문명	기사명	게재일
工業新聞	문제는 법률도서관 이관, 국립도서관 직원이 성명	1946. 5. 3.
自由新聞	반신불수될 국립도서관, 법률도서관 명령에 물의 분분	1946. 5. 3.
漢城日報	알 수 없는 군정법령 제67호	1946. 5. 3.
自由新聞	이관 후도 일반 이용 가능	1946. 5. 4.
中央新聞	국립도서관 법서적, 법제도서관에 이관, 군정청기자단 건의서 제출	1946. 5. 4.
中央新聞	문화단체서 대책을 강구	1946. 5. 4.
中外新報	국립도서관 법률도서관 이관문제	1946. 5. 4.
工業新聞	수정건의 의결, 50여 단체 대표 합동코, 문제의 법령 제67호	1946. 5. 5.
漢城日報	군정법령 제67, 68은 수정해 주시오, 법률서적은 그냥 두오	1946. 5. 5.
現代日報	문화계 전체가 단결하여 반대, 국립도서관을 열렬히 옹호	1946. 5. 5.
中央新聞	국립도서관문제, 도서옹호협력회, 50여 사회단체 대표들이 조직	1946. 5. 6.
中央新聞	시사만평, 병신된 국립도서관	1946. 5. 7.
自由新聞	신맥 때까지 배급미 확보, 법제도서관 반이(搬移)는 고려 중, 챔페니 군정장관대리 선처 언명	1946. 5. 8.
中央新聞	신한공사령 도서관령 등 수정, 여론 존중한 미군정의 대영단	1946. 5. 8.
現代日報	서적이관령 삭제 가능	1946. 5. 8.
工業新聞	완전 삭제도 가능 챔페니대좌談	1946. 5. 9.
工業新聞	문화단체에서 건의문을 제출, 법률도서관의 이관 문제로	1946. 5. 9.
中外新報	법제도서관 이전령 철폐를 요구	1946. 5. 9.
現代日報	사실: 도서관관과 영화 검열	1946. 5. 9.
漢城日報	[문화소식] 도서관 이관 문제	1946. 5. 10.

12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서 1945년 8월 15일~1946년 8월 31일까지 국립도서관, 법률도서관, 법제도서관으로 검색한 결과(총 26건)이며, 게재일 순으로 배열하되 같은 날짜 내 신문명 순으로 배열하였다.

신문명	기사명	게재일
嶺南日報	법령 제67호, 즉시 철폐를 건의	1946. 5. 10.
自由新聞	법률도서 이관 반대 건의	1946. 5. 10.
大邱時報	법령철폐 건의	1946. 5. 11.
自由新聞	법제도서는 이관 않는, 문제의 법령 67호를 제거	1946. 5. 12.
中央新聞	도서관문제 해결, 법령 67호 폐지	1946. 5. 12.
漢城日報	법제도서 안 가져간다, 군정청 법령 정식 철회	1946. 5. 12.

이러한 다각적인 활동의 결과, 5월 12일 신문기사에서 처음으로 법령 67호 폐지가 알려졌고,<sup>13</sup> 5월 13일에는 “그간 문제 중이던 법률도서 이관은 당분간 중지하게 되어 목록을 작성한 도서도 운반을 중지하고 보류”(文苑 19, 2면)하게 되었다. 결국, 여론의 압력에 굴복한<sup>14</sup> 군정청은 1946년 5월 16일 법령 제85호(Ordinance Number 85) ‘Amending Ordinance Number 67(법령 제67호의 개정)’에서 조문 제3조를 삭제(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85, 1946, 3면)하였고, 이로써 1945년 12월 1일부터 1946년 5월 16일에 이르기까지 6개월 반에 걸친 법률도서 이관 및 예산액 배분 문제를 종결짓게 되었다([그림 4]의 오른쪽 자료 참조).

오늘날 국립도서관이 전 주제 분야를 망라한 장서를 보전하게 된 것은 당시 국립도서관의 지도부와 직원들의 명석한 판단과 즉각적인 대처가 있었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납본도서관으로서 국립도서관에 대한 철학과 사명을 지닌 이재욱 관장과 박봉석 부관장 등 지도자들의 뛰어난 전략과 리더십 그리고 직원들의 단결력과 행동력이 빚어낸 승리였다고 할 수 있다.

## IV. 전국 도서관 협력 및 지원 활동

### 1. 조선도서관학교 설립

해방 후 국립도서관이 부딪친 최대 문제는 전문교육을 받은 사서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재욱 관장과

<sup>13</sup> 자유신문, 중앙신문, 한성일보에 법령 제67호 폐지 관련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sup>14</sup> 중앙신문 1946년 5월 8일자에는 ‘여론을 존중한 미군정의 대명단’이라고 되어 있으나 국립도서관과 문화단체 등에서 들끓는 당시 여론에 굴복했다고 판단된다.

박봉석 부관장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장차 도서관계 지도자가 될 인재 양성을 위한 도서관학교 설립에 착수하였다.

도서관학교에 관한 기록은 ‘도서관 해방일사’ 1945년 12월 23일 기록에 처음 등장한다. 이날 이재육 관장은 법률도서 문제로 국립도서관을 방문한 군정청 학무국장과 예술종교과장에게 회담 끝에 조선도서관학교 설립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sup>15</sup> 1946년 2월 19일에는 학무국 차장, 고등교육과장과 협의하여 조선도서관학교의 개교가 결정되었다. 당초 설립인가를 받으려고 교화국에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문교부 직할기관에서 운영하기에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하여 이후 도서관학교 설립은 빠르게 그리고 순조롭게 전개되었다. 1946년 2월 25일 즉시 조선도서관학교 학생모집 안내문을 각처에 발송하고,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도서관학교 지원자 원서를 접수하였다. [그림 6]은 중앙신문에 게재된 도서관학교 관련 기사와 광고의 사진이다.



[그림 6] 도서관학교 관련 기사(좌)와 광고(우)가 실린 중앙신문

1946년 3월 7일자 중앙신문 1면에 게재된 '조선도서관학교 학생 모집' 광고(中央新聞, 1946. 3. 7. 1면)를 보면, 모집인원은 다음과 같이 약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1) 중등학교 졸업자 관비생 및 사비생 각 10명
- (2) 중등여학교 졸업자 관비생 및 사비생 각 10명
- (3) 전문 및 대학 졸업자 사비생 5명
- (4) 위탁생 및 청강생 약간명

15 군정청에서 국립도서관을 방문한 주목적은 법률도서 이관문제 때문이었고, ‘도서관 해방일사(5)(文苑, 5, 3면)’를 보면 ‘회담 끝에 조선도서관학교에 대한 안건을 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입학시험은 필기시험(국어, 작문, 국사, 영어)과 구두시험, 신체검사를 거쳐야 했다. 3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입학시험을 거쳐 20일에 발표된 합격자는 26명이었다. 30일에는 새 책상과 의자를 갖추는 등 교실 내부를 정리하여 도서관학교 개학 준비를 완료하고, 드디어 1946년 4월 1일 오전 11시 조선도서관학교 개교식과 입학식을 거행하였다(中央新聞, 1946. 2. 27. 2면).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사서양성 전문교육기관인 조선도서관학교가 설립되었다. 개교식 내빈은 학무국장 대리 최승만(崔承萬) 교화과장과 교화과 윤세구(尹世九), 국립민족박물관장 송석하(宋錫夏), 국립과학박물관장 조복성(趙福成), 강사 이재수(李在秀) 등이었다. 이재욱 관장은 식사(式辭)에서 조선도서관학교장의 자격으로 “미취학 학령아동과 8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맹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도서관의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16</sup>

도서관학교는 1년 과정으로 설립하였으나 당시의 시급한 사회적 요망에 부응하고자 제1기생은 5개월간 집중강의를 실시한 뒤 졸업생을 20명 배출하였다. 8월 31일 제1기생 졸업식이 군정청 미국인 문교부장과 최승만 교화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8월 26일과 27일에는 도서관학교 제2기생 입학시험이 실시되어 9월 11일 제2기생 입학식이 거행되었다(館報 8, 4면). 이후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1950년까지 졸업생 총 77명으로 그 명맥이 끊겼으나, 조선도서관학교(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국립도서관학교’로 개칭)는 한국 최초의 사서양성 교육기관으로 의의가 있으며, 이후 우리나라 사서 교육의 산실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 2. 조선도서관협회 설립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서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46년 8월 31일까지 도서관협회 관련 기사가 단 한 건도 검색되지 않는다. 또한 1945년 하반기 『현장일지』에도 도서관협회 관련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현장일지』 8월 16일(목)까지의 작성자는 미야타 다모쓰(宮田保)인데, 8월 18일(토)부터는 요시모토 신이치(吉本進一)가 일지를 작성한다. 요시모토 신이치는 한국인 이의영(李宜瑛)의 창씨개명으로 10월 5일까지 이 이름을 사용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8월 18일부터라고 추정된다.

‘도서관 해방일사’를 보면 8월 18일부터 박봉석은 즉시 조선도서관협회를 결성하려고 행동에 나섰다.

16 조선도서관학교 개교식과 입학식에서는 이외에도 교화과장 최승만과 진단학회 대표 송석하의 축사가 있었다(館報 3, 1-2면 참조).



먼저 시내 각 도서관을 방문하고, 다음 날 오후 2시 개최 예정으로 조선도서관협회 결성 준비위원회 소집 통지서를 발기인 대표 박봉석 명의로 시내 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등 18개 처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회의는 준비가 덜 되어 연기되었고, 8월 27일 동(同) 준비위원회 소집장을 다시 발송하여 드디어 8월 30일 오후 2시 국립도서관에서 도서관협회 결성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발기인 대표 박봉석이 취지를 설명한 후 이 준비회를 결성대회로 변경하자는 일반대표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규약 통과 및 임원 선출이 이어졌다. 임원으로 위원장에 박봉석, 상무위원에 박봉석, 이흥직, 호한현(扃漢顯),<sup>17</sup> 송몽룡, 서기에 강춘수, 이준근이 선출되었다. 토의사항에서는 시내 도서관 접수에 관한 건, 전국 도서관 연락에 관한 건 등을 가결하였다. 9월 29일에는 도서관협회의 간판을 주문하여 10월 1일 협회 간판을 국립도서관 정문에 걸었으며, 10월 17일 조선도서관협회의 인장을 완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한편,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일본인 관장이 조선도서관연맹 이사장을 겸했으므로 사무인계와 회계정산이 필요했다. 이에 9월 6일에는 일본인 전 관장에게 조선도서관연맹의 사무인계를 요청하여 10월 5일 2,500圓을 인수함으로써 회계정산이 완료되었다. 이 자리에는 조선도서관협회 위원장 박봉석, 조선도서관연맹 측에서는 동(同) 연맹의 이사장 오기야마 히데오(荻山秀雄)와 이사이자 운수(運輸)도서관 주사인 후루노 다테오(古野健雄)가 참석하였다.

조선도서관협회는 10월 18일 조선도서관연맹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통지를 발송하고, 이듬해인 1946년 6월 18일에는 협회의 회원모집에 관하여 각처에 안내서를 발송하는 등 새롭게 탄생한 협회를 알리고 동참하도록 적극 독려하였다. 1947년 1월 이재욱 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략) 일반 국민의 필생적(畢生的) 학당이며 또 교양처라고 볼 수 있는 소위 도서관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 하겠고, 또 이 도서관망(網)의 조성이야말로 현 단계에 있어서는 화급한 사업의 하나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sup>18</sup>

여기서 도서관망의 조성은 조선도서관협회의 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장 역시 협회 결성을 당장 추진해야 할 사업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도서관협회가 결성되면서 해방 직후의 도서관인들은 단결하여 각 도서관을 온전히 인수하고 상호 협력하려고 긴밀히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17 드문 성씨인 데다 다른 기록에는 모두 호기현(扃基顯)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漢'은 '基'의 오기로 보인다.

18 '신년감(新年感)'(文苑 11, 1면)에서 이재욱 관장이 언급한 말이다.

## V. 나오며

이상으로 국립도서관의 개관 및 해방 후 1년간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로 국립도서관은 1945년부터 1946년에 이르기까지 혼란스러운 해방정국을 거치면서도 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운영뿐 아니라 전국 도서관 협력·지원 활동의 초석을 놓았고 도서관계의 리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있게 된 배경에는 해방 후 초창기 국립도서관의 활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잠들어 있던 서고에서 발견한 1차 자료들을 발굴·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에 발굴한 이러한 자료들 중 일부가 디지털화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모두 디지털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열화가 진행되는 자료들은 보존·복원 처리를 무엇보다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한다. 올해 78주년을 맞이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해방 당시 선배 도서관인들을 기리며 과거를 거울로 삼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소중한 우리 도서관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國立圖書館. (1946). 館報. 제8호.

國立圖書館. (1947). 文苑. 제11호~제21호.

軍政廳法令第六十七號. (1946. 4. 2).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軍政廳法令第八十五號. (1946. 5. 16).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도서관학교, 4월 1일부터 개교. (1946. 2. 27). 中央新聞.

반신불수될 국립도서관. (1946. 5. 3). 自由新聞.

송승섭 (2021). 李在郁의 著作과 業績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619-644.

시사만평: 병신된 국립도서관. (1946. 5. 7). 中央新聞.

移動辭令第七十七號. (1946. 3. 30).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조선도서관학교 학생 모집. (1946. 3. 7). 中央新聞.

朝鮮總督府圖書館. (1944). 文獻報國. 10(12), 15.

朝鮮總督府圖書館, 國立圖書館. (1945). 現場日誌(2책). 京城: 朝鮮總督府圖書館, 서울: 國立圖書館.

조혜린 (2020). 국립도서관 초대 관장 이재욱에 대한 一考: 조선총독부도서관 기관지 『문헌보국(文獻報國)』을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84, 279-298.

조혜린. (2023). 해방 이후 국립도서관 발행 기관지 분석: 『館報』 및 『文苑』을 중심으로. 2023년 춘계 공동 학술대회.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57-68.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출처: <https://nl.go.kr/newspaper/>